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사회교정사목위원회

발행 현대일 루도비코 신부 주소 02862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20길 27 (빛의사람들) 전화 02)921-5093
FAX 02)921-7847 E-Mail kyodo@catholic.or.kr 홈페이지 www.catholic-correction.co.kr

머리글

송정섭 시몬 신부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부위원장

가장 낮은 자리



티모시 슈말츠(Timothy Schmalz) 작가의 동상 작품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얇은 천을 몸에 두르고 몸을 잔뜩 웅크린 채 벤치 위에 누워있습니다. 그의 발에는 못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는데, 마치 예수님의 발을 보는 듯합니다. 작품의 이름은 'Homeless Jesus'(노숙인 예수)입니다.

이 작품에서 영감을 얻어 성탄 구유를 만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저분한 골목길처럼, 깨진 벽돌 몇 개와 작은 쓰레기통을 놓고 바닥에는 신문지를 깔았습니다. 철사로 앉아 있는 사람 모양의 뼈대를 만들고, 성당 지하 창고에 버려져 있던 누더기 천을 씌웠습니다. 그렇게 만든 노숙인 모형 앞에는 빈 깡통 하나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노숙인 모형의 품에 아기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동방박사 자리에는 손재주가 좋은 청년들이 만든 마더 테레사 수녀님과 선우경식 선생님 등의 모형을 놓았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을 버리고 사랑과 희생의 삶을 스스로 선택했던 분들이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그들이 어리석고 바보 같아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들이야말로 하느님 나라의 가치를 알아보고 복음을 선택한 신앙인의 모범이었습니다.

보통은 따뜻한 초가집 모양으로 된 구유에 아기 예수님을 모시지만, 그러한 구유를 보며 웬지 모르게 외당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구유는 가족의 밥그릇입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꾸민다 한들, 본래 더럽고 냄새나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하느님은 가장 약한 모습과 가장 비천한 자리를 선택하셨는데, 마치 어둡고 초라한 모습이 싫어서 외면하고 싶다는 듯이 보통의 성탄 구유는 너무 화려하고 안락해 보였습니다. 물론, 밝고 따뜻한 아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희망과 위로를 전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한 번쯤은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의 모습으로 오실 예수님을 함께 묵상해보고 싶었습니다.

이제 대림 시기가 지나면, 우리는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겠지요. 하지만 너무 기쁨에만 취해있기보다는 함께 묵상해 보았으면 합니다. 황금 성전이 아닌 가장 누추한 곳과 가장 가난한 모습을 선택하신 하느님은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일까요? 가장 낮은 자리가 사실은 가장 높은 자리라는 점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닐까요?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이라 하여 결코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시려는 것이 아닐까요? 더 나아가, 우리는 더 버리고 더 낮아져야 한다는 것이 아닐까요? 뜻깊은 성탄 맞이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위례성모승천성당 후원회원 모집 미사



10월 19일(토)~20일(일) 위례성모승천성당에서 사회교정사목위원회 후원회원 모집 미사를 봉헌하였습니다. 교정 사목 신부들은 강론을 통하여 “땅에 떨어져 있는 낙엽들도 기분이 좋을 때 보면 낭만이지만, 마음이 꼬여 있을 때 보면 그저 쓰레기일 뿐이다”라며 “같은 대상을 두고도 내 마음에 따라 그 대상은 달리 보일 수 있듯이 사람의 시선이 그렇다” 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교정사목의 활동을 소개하며, 감옥에 갇힌 이, 범죄 피해자와 출소자들에 대한 기도와 관심을 부탁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신자분께서 후원회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후원 모집 미사를 봉헌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고 도움을 주신 위례성모승천성당 신부님과 신자분들, 더불어 후원회원이 되어 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사를 전합니다.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미사



10월 31일(목) 명동 대성전에서 ‘수용자들의 교정교화를 위하여’라는 지향으로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미사가 봉헌되었습니다. 현대일 루도비코 위원장 신부는 강론을 통하여 “60년 된 교정시설에서 비가 새고 4명 정원인 방에 기본 6명 이상이 생활하며 작은 창문으로 여름을 지내야 한다. 죄값을 받아야 한다며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수용자에게 교정교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감옥에 갇힌 수용자들은 다시 사회에 나와 우리와 함께 지내게 될 것이고 감옥은 교정교화를 위한 교정시설”임을 기억하고 관심을 기울여 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사형수를 위한 위령미사



11월 4일(월) 의정부교구 갈곡리성당에서 사형수를 위한 위령미사가 봉헌되었습니다. 송정섭 시몬 부위원장 신부는 강론을 통하여 “사형수의 시신은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인도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인수를 거부하거나 무연고 사형수들이 광탄 나자렛 묘원에 묻혀 있다. 어쩌면 살아서도 외로웠고, 죽어서도 더 외롭게 있을지도 모를 그런 이들의 자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사형수를 찾아와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습은 ‘가장 보잘 것 없는 이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가장 모범적인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위령미사와 연도를 마치고 무연고 사형수 25명이 잠들어 있는 광탄 나자렛 묘원으로 이동하여, 묘지를 정돈하고 합동 기도를 바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사형수 영혼들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한번 가보자

권진 데레사 / 서울남부교도소 훈련원 봉사자

제가 교정사목을 처음 접했을 때는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년 가을쯤이었습니다. 둘째아이 입시를 끝냈고, 갑작스럽게 친정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많이 힘들어하던 때였는데, 그때는 유독 우울하고 눈물도 많이 흘리며 보냈었습니다. 코로나로 끊겼던 미사는 재개되었지만, 모든 봉사 활동이 중단된 상태라, 그나마 미사만이 유일한 탈출구였다는 듯이 성당과 집을 오가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전까지 본당에서 노인대학 주방 봉사를 9년간 해왔었고, 가정주부인 저에게 가장 찰떡같이 맞는 소임이라고 생각해 왔었기에, 처음 교정사목 봉사를 제안받았을 때는 너무나 동떨어진 이질감 때문에 사실 제가 이일을 실제로 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교정사목을 권유받아 ‘교육 정도만 받아보자’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었고, 교육을 수료한 후 신부님과의 면담 때도 일단 금요일이 시간이 된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코로나가 끝나야지 봉사가 시작될 일정이기에 그때 가서, 해야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어느덧 영원히 계속될 듯하던 코로나 시기가 끝나고 모든 일상이 다시 회복되어 교정봉사자로서 서울남부교도소 직업훈련원으로 배정을 받았을 때, 사실 많이 고민도 하고 망설이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일단 한번 가보자고 마음먹었던 것은 코로나 전에 하던 주방 봉사가 없어져 버리기도 했지만, 아마도 쉽게 들어가 볼 수 없는 교도소라는 폐쇄적인 공간에 대한 궁금증과 호기심이 한몫한 거 같습니다.

첫날, 내비게이션에도 나오지 않는 생전 처음 가는 장소를 어찌어찌 찾아가면서 많이 당황했던 기억도, 처음 만나는 선배 봉사자와 나눈 어색한 첫인사도, 그리고 수용자 형제님들의 다소 과격한 비주얼과 맞닥뜨렸을 때의 충격도 봉사 3년 차를 보내고 있는 저에게는 ‘그때는 그랬었지...’ 하고 웃음 지을 수 있는 추억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어느덧, 4명밖에 없어서 더 각별한 동료들과는 다시없는 절친이 되었고, 집에서 교도소를 오가는 길은 조금 과장을 한다면, 눈감고도 갈 만큼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저는 형제님들을 바라보는 제 관점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를 놓고 고민 중입니다. 익숙하고 편해지기는 했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세월이 더 가면, 그 부분도 자연스럽게 해결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 전, 드디어 교정위원으로 위촉받아 신분증 없이 교도소 출입도 가능한 진짜 교정 봉사자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신 이 소임에 제가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고, 또한 제 행복도 아주 많이 챙겨가겠습니다.



나 발

현대일 루도비코 신부_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나발’은 히브리어로, ‘어리석은 자’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그의 이름을 소개하기에 앞서 그가 얼마나 부자인지 알려 줍니다. “마온이라는 곳에 어떤 사람이 있었다. 그는 카르멜에 목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양이 삼천 마리, 염소가 천 마리나 되는 큰 부자였다.”(1사무 25,2) 이런 식의 소개는 나발이라는 사람은 인격보다 소유를 우선시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거칠고 행실이 악하였다”(1사무 25,3)고 평가합니다. 게다가 술과 잔치를 좋아하는(1사무 25,36) 먹보요, 술꾼이었을 듯합니다. 그런데 ‘큰 부자’였다는 성경의 히브리어 표현은 모세와 욕을 소개할 때 썼던 말로 번역본에 따라, 단순히 부자로 번역하기보다, ‘위대한 사람’ 혹은 ‘매우 강력한 사람’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리석은 사람이고, 인격의 됬됨이 보다 소유나 재물을 탐했던 사람으로 후대에 평가받는 사람이지만, 당대에는 칼렙족의 유력자였을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광야에 있을 때, 이 칼렙족 유력자 나발에게 다윗의 부하들이 다가가 이야기합니다.

“택이 지금 양털을 깎는다는 말을 듣고 왔습니다. 택의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는 동안, 우리는 그들을 괴롭힌 적이 없습니다. 카르멜에 있는 동안 내내 그들은 아무것도 잃지 않았습니
다. 택의 일꾼들에게 물어보시면 그들이 사실대로 알려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좋은 날 우리가 찾아왔으니 이 젊은이들을 너그럽게 보아 주시어, 부디 택의 종들과 택의 아들 다윗에게 무엇이든지 손에 닿는 대로 집어서 보내주십시오.”(1사무 25,7-8)

경찰 등의 공권력이 없는 나라의 들판은 무법천지였을 것입니다. 더욱이 야간에는 야생동물까지 양과 염소를 공격했을 텐데, 광야에 있던 다윗 일행들이 “성벽이 되어”(1사무 25,16) 나발의 일꾼과 소유한 것을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그때의 다윗 일행의 도움을 기억해, 이제 먹을 것을 좀 도와달라고 다윗 일행이 나발에게 청한 것입니다. 그런 다윗 일행에게 나발은 말합니다.

“도대체 다윗이 누구며 이사이의 아들이 누구냐? 요즈음은 주인에게서 뒤흔쳐나온 종들이 득실거리는 판이다. 그러니 내가 어찌 빵과 물, 그리고 털을 깎는 내 일꾼에게 주려고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주겠느냐?”(1사무 25,10-11)

나발이 정말로 다윗을 몰랐을 수 있겠지만, ‘주인에게서 뛰쳐나온 종들이 득실거리는 판’이라는 표현은 사울 왕의 수하였다가 광야로 뛰쳐나온 다윗을 비꼬는 말인 것입니다. 유력자였던 만큼 그는 당시 정치 실세인 사울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을 것입니다. 왕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그렇게 많은 부를 쌓을 수 있었고, 또 그만큼 부자였기에 왕과 인연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배고픈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사울에게 학살당한 놈의 사제 아히멜렉과 그 집안 이야기(1사무 21,1-7;22,16-19)를 나발은 들었을 수 있습니다. 정치적 신념과 또 자신의 집안과 소유를 지키기 위해 다윗을 물리친 것입니다. 또는 수천 마리 가축과 수백 명의 종을 가지고 있는 나발에게는 다윗 일행의 도움이 별거 아닌 것으로 느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에게 어리석다며 ‘나발’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보다, 약삭빠르고 현세적이라는 비평이 더 옳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학살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점술을 좋아하며 정적인 다윗을 죽이려 안달하던 사울에 줄을 섰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느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뜻의 아비가일이 다윗을 향해 지아비에 대해 어리석다며 낮추고, 재물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나발은 사울의 칼과 아비가일의 조치로 다윗의 칼을 피할 수 있었으나, 결국 그는 하느님의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자기 아내 역시 다윗에게 빼앗기며, 재산도 잃고 맙니다. 받은 도움을 잊거나 무시할 경우 어떻게 당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이 손에 쥔 재물을 잃지 않기 위해서, 약삭빠르고 현세적인 처신을 하곤 합니다. 그러는 중에 종종 우리가 받은 도움과 은혜, 은총을 잊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런 이를 결코 현명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수용자들이 출소자가 됩니다. 갇혀 있는 동안 정말 고마웠다면 후원자가 되기도 합니다만, 반대로 자신의 삶을 살기 급급하며 그 도움을 잊고 사는 이들도 있습니다. 수용자, 출소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살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의 크고 작은 도움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 여러 이권으로 인해 그 도움을 잊고, 혹은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모든 재난과 환난 속에서도 여러분의 일로 격려를 받았습니다. (1테살 3,7)

김일호 미카엘_기쁨과희망은행 본부장

‘역경 지수가 승패를 좌우한다.’

우리창을 바닥에 떨어뜨리면 깨져 버리고 진흙은 바닥에 달라붙어 버립니다. 그러나 공은 탄력 있게 튀어 올라 더 높이 날아갑니다. 마치 떨어져도 다시 튀어 오르는 공과 같이, 절망과 실패를 극복해 내는 힘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어 단어 중 ‘resilience’는 (충격·부상 등에서의) 회복력, 복원력, 탄력을 뜻하는데 회복력, 복원력, 탄력 모두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힘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속 위대한 인물 중 역경과 시련이 없었던 인물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일수록 그 어떤 이들보다 괴로운 실패와 역경의 시간을 지냈습니다. 산악인의 진가는 야산에서가 아니라 험한 산을 오를 때 나타납니다. 뱃사공의 진가는 잔잔할 때가 아니라 풍량이 불어 닥칠 때 나타납니다.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기회 역시 환난과 시련, 도전을 받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포기를 쉽게 하는 사람이야.’라고 생각한 순간 이미 스스로가 그것을 단점이라고 인지한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뛰어넘기 위해 노력해 보세요. 그렇게 ‘최선’을 다한 후, 돌아본 모습이 진정한 ‘당신 모습’입니다. (출처: 따뜻한 하루)

출소를 앞둔 수용자와 출소 후 자활을 위해 준비 중인 출소자들을 상담하다 보면, 한순간의 선택과 행동으로 인해 인생과 삶이 180도 변해버린 사연을 듣게 됩니다. 본인 잘못으로 인해 가정이 잘못되어 가족에 대한 죄책감, 상실감, 우울감을 느끼기도 하고, 출소 후에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만, 변해버린 사회와 가정에 마주하다 보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존재로 본인을 바라봅니다.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인해 취업, 대인관계, 가족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경제적으로 생계유지와 신용불량으로 인한 빚 문제 어려움이 있고 심리적으로도 죄책감과 자괴감, 불안감과 우울증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을 겪기도 하고 사회 시스템에 대한 적응, 새로운 기술 습득 등 사회에 적응하는데 힘들어합니다.

기쁨과희망은행은 사회 적응과 자립을 위해 준비 중인 출소자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부님들을 비롯해 많은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운영위원님들이 함께합니다. 단순히 창업자금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 신부님들의 영성과 인생의 선배 또는 멘토인 운영위원으로서의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창업을 위한 과정은 쉽지만은 않지만, 출소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역경을 극복하는 데 힘이 되겠습니다.

여러 감사한 분들께,

안녕하세요, 저는 남부교도소에서 천주교 성가대 활동과 세례봉사를 위하여 예비 신자 교육을 받고 있는 [] 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런 건 면전에서 직접 전하는 것이 도리라는 것을 알지만, 성격이 발랄지 못한 탓에 이렇게 편지로나마 죄송스런 한 자씩 전원을 드려 봅니다. 남부교도소로 이송을 오기 전까지 저는 인생 가장 최악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굳건했던 신앙심까지도 큰 방황기에 있었습니다.

돌아쳐 보면, 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거듭나길 바라셨던 하느님의 뜻도 모르고 저는 그저 원망과 좌절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가 더 못하는 것을 하느님께서는 원치 않으셨는지 이곳으로 보내시어 다산과 성령의 권능에 의지하여 치유받고 변화하게 하였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제게 아름다운 웃을 입혀주셨습니다.

특히나 이 사랑과 자비, 은혜를 깨닫고 저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에 깊은 감사를 느낍니다. 여전히 양육을 받는 시간 속에서 살고 있지만, 좌절과 시련에도 별다른 일이나 이에 직면해 극복하기 위해 바르티메오처럼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에 호소하는 끈질긴 믿음으로써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지루한 일이 없는, 눈과 귀가 즐거운 미사를 이끌어 주시는 성직자 동료 신부님과 알찬 예비 신자 교육 시간을 준비해 주시는 마리아 수녀님, 아름다운 성가 반주의 카롤리나 자매님, 성가대원들에게 물심양면으로 애써 주시는 남부교도소 천주교 대장 명숙환 주임님, 미사마다 천주교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이만 줄입니다.

이제 저는 방황하지 않고, 하느님의 뜻에 따라 쓰임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네가 물 한가운대를 건너다 해도 나 너와 함께 있고, 강을 건너다 해도 너를 잃지 않게 하리라. 네가 불 한가운대를 건너다 해도 너는 타지 않고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하리라. (이사야 43, 2)

† [] 올림

*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생활하는 형제님이 정민하 신부님에게 보내는 감사 편지입니다.
형제님에게 늘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길 기도합니다.

후원 계좌번호

예금주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농협 386-01-013881

우리 1005-700-335190

국민 375301-04-003539

신한 100-019-558299

하나 209-910017-31705

2025년 1월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월례 미사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서는 첫째 주 월요일 후원회원과 회원 가족들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후원회원, 봉사자 외에도 사회로부터 소외된 수용자의 가족과 출소자, 그리고 범죄로 피해를 입은 해밀 가족분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싶은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 일시: 2025년 1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사제들은
매일 후원회원과 봉사자들을 위하여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
미사 중에 기억하겠습니다.

교정사목 휴대폰 번호: 010-3732-5093



카카오톡 채널

● 행사 알림

- 12월 2일(월)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월례 미사 / 가톨릭회관 3층
- 12월 3일(화)~5일(목) 서울남부구치소 남사 6기 인성교육 / 서울남부구치소
- 12월 4일(수)~6일(금) 기쁨과희망은행 취창업교육 / 수원구치소 남사
- 12월 5일(목) 2024년 제25회 교정시설자원봉사자교육 파견미사 / 교정사목센터
- 12월 10일(화)~12일(수) 기쁨과희망은행 취창업교육 / 서울구치소 남사
- 12월 12일(목)~13일(금) 서울남부구치소 남사 4기 성폭력심리치료프로그램 / 서울남부구치소
- 12월 18일(수) 해밀 가족 미사 / 교정사목 센터
- 12월 20일(금) 서울구치소 최고수 성탄 미사 / 서울구치소



● 새로운 교정사목 가족을 소개합니다. (24/10/16~11/15)

2024년 10월~11월에는 소재인 미카엘라, 신순전, 정서연 가브리엘라, 윤정화 클라우디아님께서 후원회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더불어, LEE EN KYOUG Anastasia, 김기대, 박혜련, 심남희 크리스티나, 조동환, 최명수님께서 기부금을 보내주셨습니다.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입금자 명의로만 가능

기부금 영수증은 위원회 통장에 기록된
입금자 명의로만 발급 가능합니다.

발급자 정보 알림

1월 3일(금)까지 발급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위원회에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편 수령 별도 연락

우편 수령은 별도 연락 부탁드립니다.

2025년 1월 15일 이후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확인 가능

1월 15일 이후,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사이트에서 확인가능합니다.

홈페이지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사회교정사목위원회 홈페이지 메일 상단에
‘후원확인’에서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 확인 경로 : 홈페이지 상단 ‘후원확인’ 클릭 → 로그인 → 오른쪽 목록 ‘기부금영수증’ 클릭



▶ 기부금영수증 조회



▶ 홈페이지
기부금영수증 공지사항

귀한 사랑을 나누어주신 후원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 후원사업부 : 02)921-5094 / 010-3732-5093

※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은 사회교정사목위원회
홈페이지 <게시판-공지사항>에서 출력 가능